

# 헤르메스 신화

글:정한나  
그림:권오훈, 김채송



팀명:조용한 팀

글 및 그림 콘티:22429020 정한나,

그림(1~10 페이지):22429001 권오훈,

그림(11~20 페이지):22429004 김채송.



올림포스의 12신 중 하나인 헤르메스,  
그는 뛰어난 잔머리의 소유자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봄의 여신  
마이아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오!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다니!”



제우스와 마이아는 데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우스의 아내인 헤라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는 버럭, 화를 냅니다.

“마이아! 내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마이아는 헤라의 분노를 피해 아기인 헤르메스를 데리고 깊은 동굴로 숨었습니다.

“여기라면 안전할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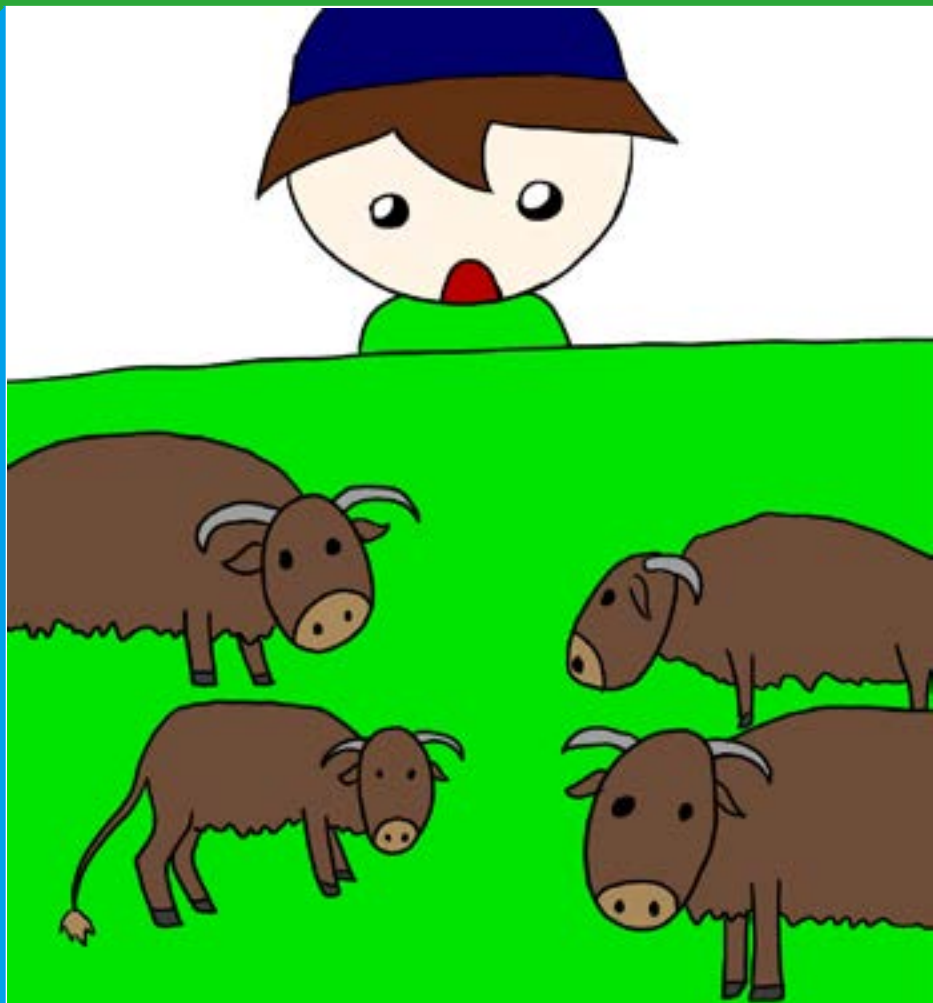
마이아는 헤라가 잠을 자거나 제물을 확인할 때  
동굴 밖으로 나와 식량을 얻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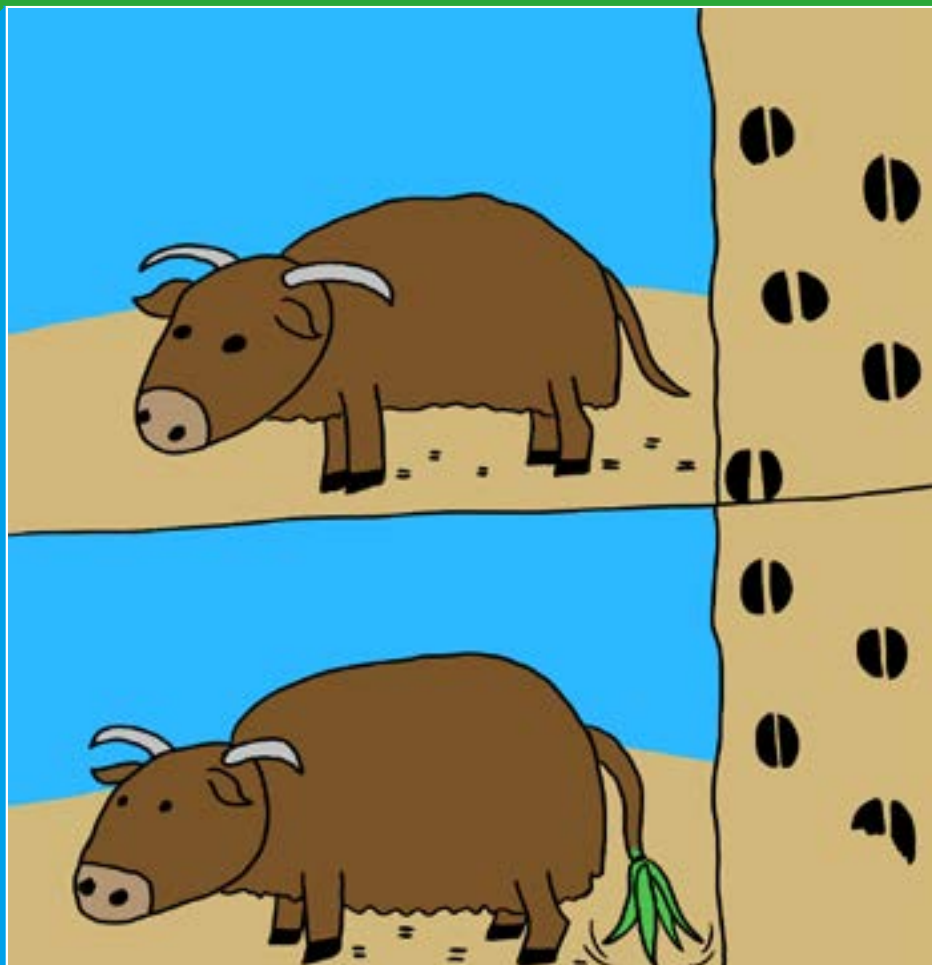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고, 아이가 된 헤르메스는 문득, 바깥 세상이 궁금해져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은 어떤 세상일까? 한번 나가보자!”



밖으로 나온 헤르메스는 들판에 있는 소 떼들을 발견했습니다.

“우와, 진짜 많다~!”



헤르메스는 잔머리를 써서 소의 꼬리에 수풀을 묶어 발자국을 없애는 방법으로 소들을 훔쳤습니다.



소의 주인인 아폴론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자 화를 냈습니다.

“누구야! 누가 내 소들을 훔쳐간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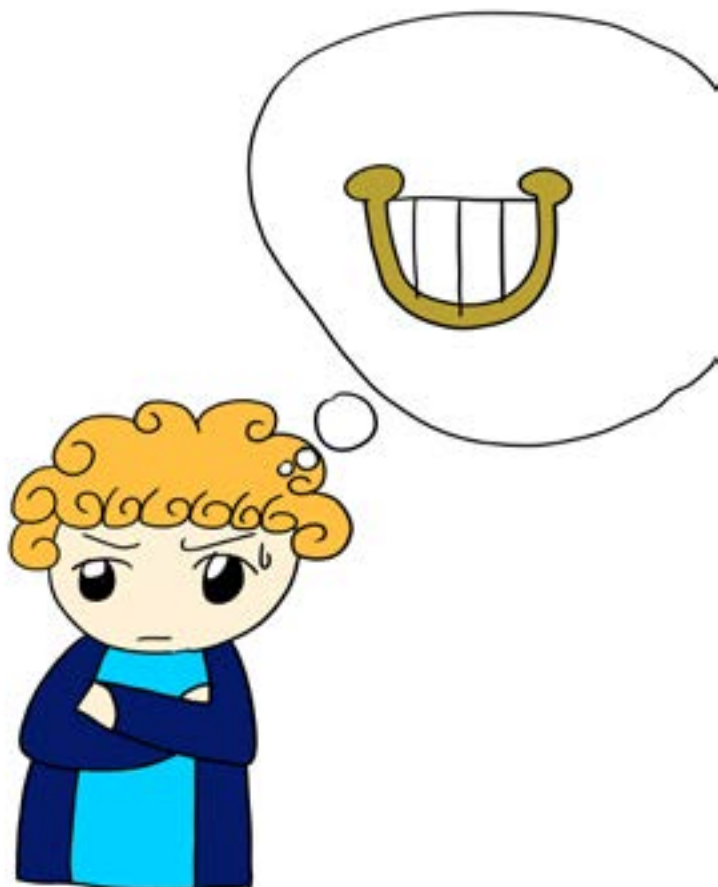


범인을 알아낸 아폴론은 헤르메스에게 달려갔지만  
헤르메스의 리라 연주에 감동하여 화가  
가라앉았습니다.

“헤르메스! 네 녀석이 내 소들을 훔쳐간거냐?!”

“그 전에, 제 연주부터 들어보세요!”

“오!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라니!”



리라가 갖고 싶었던 아폴론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리라를 손에 넣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아폴론은 카두케우스 지팡이를  
소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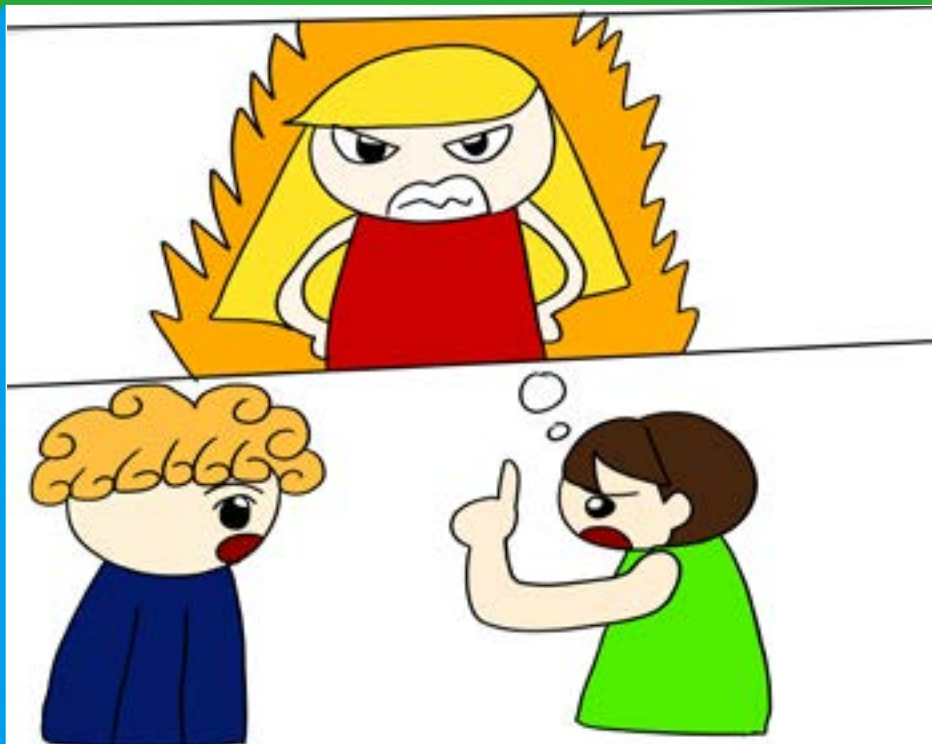
“아, 그래! 카두케우스가 있었지!”



아폴론은 헤르메스에게 지팡이와 리라를 교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카두케우스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  
리라랑 교환하자.”





헤르메스는 어떻게하면 헤라의 분노를 잠재울 수 있을까, 아폴론에게 질문했습니다.

“헤라 님의 화를 가라앉힐 방법은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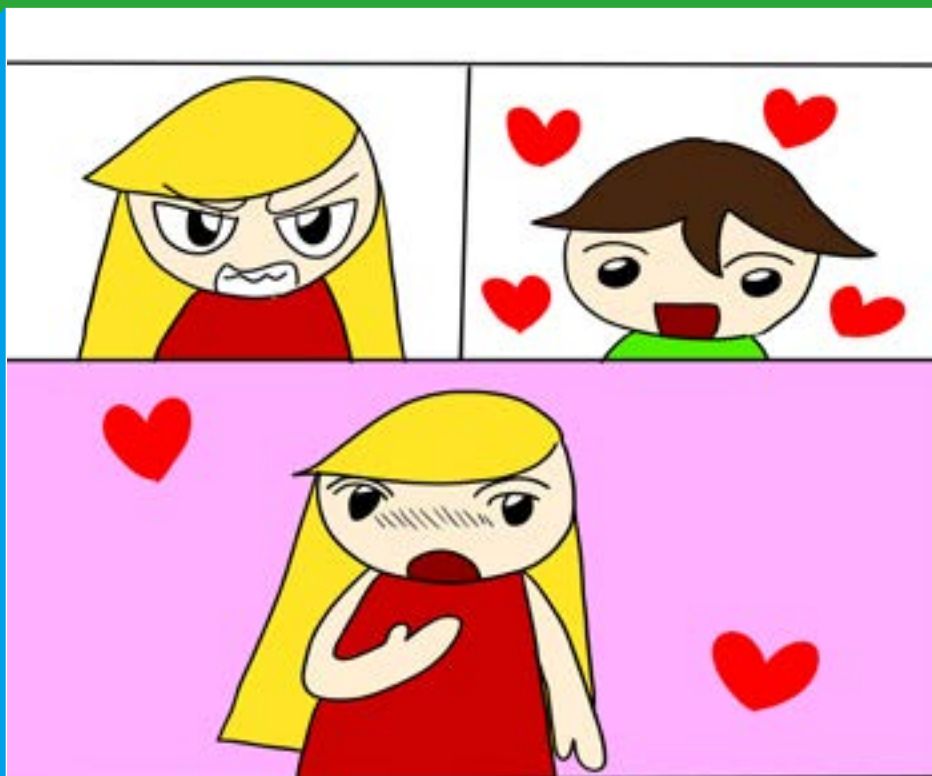
아폴론은 아레스를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헤라 님은 지금 아레스를 돌보고 계셔. 아레스로  
변신하면 될거야.”



헤르메스는 카두케우스 지팡이를 사용해 아레스로 변신하여 헤라의 귀여움을 받았습니다.

“헤헷! 작전 성공이다!”



뒤늦게 사실을 알아챈 헤라, 하지만 헤르메스가 귀여운 탓에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헤르메스! 네가 감히....!”

“헤라 님, 무슨 일이시죠?”

“애, 애가 원래 이렇게 귀여웠던가...?”



시간이 흘러 하늘을 나는 모자와 신발을 받은 헤르메스는 전령의 신이 되어 제우스의 명을 받아 눈이 100개가 달린 괴물 아르고스를 상대하거나, 인간들을 시험했습니다.



신이 된 헤르메스는 마이아를 올림포스로 데려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